

공사중인 아파트 와르르...하청업체 작업자 6명 사망

사건사고로 되돌아 본 광주·전남 2022

코로나19 공포가 사그라진 2022년에도 광주·전남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건설중인 아파트가 무너져 6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고, 사회적 고립을 버티지 못한 일가족이 삶을 등지는가 하면 이태원 헬러인 축제를 찾은 지역 젊은이들이 꿈을 피우지도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고등학생이 교사의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하는가 하면 교사들은 시험문제를 베껴 출제하는 등 대학입시 경쟁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건도 불거졌다. 하지만 어두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암매장된 유골에서 5·18 행방불명 가족의 유전자 발견과 난제인 5·18 행방불명자 찾기에 서광이 비추기도 했다. 광주일보는 올 한해 지역에서 발생한 '5대 사건 사고'를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한다.

1 화정 아이파크 붕괴

20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 인근은 지나가는 사람 없이 고요했다.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이 있는 인근 대로변에는 "안전대책 후 철거작업 진행하라", "정몽규는 피해자에 사과하라"는 현수막만 남겨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다.

올 초 이곳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날 이후 시간이 멈

춰버린 듯 했다. 붕괴 이후 위태롭게 남아있던 사고동(201동) 기둥·벽체 잔해만 겨우 수습했을 뿐 본격적인 철거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다.

지난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201동 건설 현장에서 서고 있던 건물 23~38층이 붕괴해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철거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가 일어난지 불과 7개월만이었다.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및 하청업체 관계자 등 총 22명을 입건 수사해 6명을 구속 송치,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학동 참사 7개월만에 큰 충격

빨리빨리 공사·불량 콘크리트

부실 관리 맞물려 발생한 '인재'

안전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미흡

정부는 무단 공법 변경, 불량 콘크리트 사용, 부실한 시공 관리 등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인재'(인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타설한 콘크리트부터 불량이었다. 총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 강도의 85%에 못 미쳤다.

35~39층 5개 층을 각각 6~10일 만에 타설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통상 겨울철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는 기간은 3~4주(최대 28일)이나 현장에선 평균 1주일에 한 층씩 세워올린 것이다.

또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호 실리콘·스프링클러·타일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작업자들을 투입시키는 등 시공사측이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작업지시를 내린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골조공사 하도급 업체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펌프카 업체에게 '대리시공' 시키는 등 불법 단계 하도급을 맡기고, 36~39층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동바리를 작업 편의상 조기에 철거한 사실도 밝혀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월 사고 유가족과 피해 보상 합의를 하고, 10월에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배상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인근 상인들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붕괴 사고 원인인 '빨리빨리 공사'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20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신축 주택 건설현장에서는 '양생포' 덮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지난 19일까지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도 골조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창호 시공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김승두 한국노총 건설노조 광주지부장은 "한파가 불어치는 지금이 순간에도 광주 곳곳의 아파트가 날마다 한층씩 올라가고 있다"며 "참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는 공사 기간(공기)을 단축할수록 인건비, 공사지연금 등을 줄일 수 있어 '빨리빨리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안전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발주처·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지난 2020년 발의된 뒤 지금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송성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법안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건설안전특별법 등 제도 변화조차 없으니 공사현장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6일까지 화정아이파크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내로 8개 동 전체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관할구청인 광주시 서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유해위험방지계획 등을 보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작업 중지명령을 해제한 뒤 오는 3월경부터 철거를 시작, 2024년 재시공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이파크' 비공개 청문회...현대산업개발 봐주기?

서울시 1차 이어 2차도 공개 안해

조오섭 의원 "강력한 처벌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20일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 청문회를 앞두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 비공개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추가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4개월 만에 2차 청문회를 열지만 이조차도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숨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

가 나온다.

조 의원은 서울시에 청문회 개요·일정·내용·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질의했지만, 서울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함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며 답변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위 소문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준 현안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청소년 둘 중 한 명 "헌법 전문에 5·18 수록해야"

전국 1012명 5·18 인식조사

전국 청소년 둘 중 한 명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명 중 한 명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2022 청소년 대상 5·18 인식조사' 결과에 담겼다. 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중학교 2학년생, 고등학교 2학년생) 1012명을 대상으로 5·18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국 청소년 53.8%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4%, '필요하다'는 응답이 39.8%를 각각 차지했다.

또 5·18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11.0%의 청소년이 '직접 본 적 있다'고 답했다. 가짜뉴스를 접한 경로로는 유튜브(36.7%)가 첫 손에 꼽혔다.

5·18 관련 현 정부의 추진 과제로는 '피해자 보상 및 치유'가 3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진상 조사 및 진실 알리기'(32.9%), '5·18 기념사업·시설 조성'(17.8%), '5·18정신 세계화'(15.8%) 등 답변도 뒤를 이었다.

재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눈길에 거꾸로 선 차량 20일 오전 7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유덕동 제2순환도로 유덕 톨게이트에서 A(여·43)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블랙아이스(도로 위 얼얼음)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독자 제공>

전남경찰 체감안전도 전국 18개 경찰청 1위

전국 18개 경찰청 1위

광주는 2단계 하락 16위

전남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관련 안전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2022년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종합 점수 82.2점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체감안전도 조사는 관할 경찰서 지역민 200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로 걸어 범죄·교통사고 안전도, 범죄저 준수 등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5만1600명(전국 258개 경찰서별 200명씩, 전남 21개 경찰서 4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남경찰청은 조사 분야 모든 항목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범죄저 준수도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7.9점 향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올해 중점 추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이 체감안전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광주경찰청은 종합점수 76.4점으로 지난해 14위에서 2단계 하락한 16위를 기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 무릎 | 어깨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